

영화 공교육 어떻게 준비할까?

KOFIC

“영화 공교육 어떻게 준비할까?”

- 연극 교과 채택 과정으로 비춰보는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글 : 송순진

발행인 김세훈

발행일 2017 년 4 월 25 일

영화진흥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 층, 14 층

전화 (051)720-4700 / 팩스(051)720-4849

홈페이지 www.kofic.or.kr

©영화진흥위원회, 2017

Contents

01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 / 1-8

Box

진행 장다나 영화진흥위원회 산업정책연구팀 객원연구원

패널 오세곤 순천향대학교 교수/한국연극교육센터 센터장

김정만 창덕여중 교사/한국교육연극학회 이사

이연심 경기여고 교사/한국교육연극학회 이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미디어에 둘러싸여 살아가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영상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학교 현장은 이미 다양한 영상 및 영화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 범위, 활용 빈도수가 나날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정작 범람하는 영상물을 어떻게 선별해 받아들이고 창조해나갈 것인지에 관련한 기초교육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 양성 코스에 집중된 현 영화교육 시스템 역시 영화 공교육과 괴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진행한 내외부 정책 수요조사에서 수용자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의 하나로 화두에 오른 '영화 공교육 추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 첫 단계가 될 '연극 교과 채택 과정으로 비춰보는 청소년 영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는 인성교육과 그 방편의 하나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내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선정된 연극이 어떤 방식으로 결실을 맺었는지, 그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연극이 공교육 교과목으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영화를 교과목으로 추진하기 위한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끝)**

장다나 영화는 현재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언어'로도 손꼽히는 장르다.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형태의 영화 공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연극의 공교육 교과목 선정을 위해 노력해온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영화 공교육 추진'을 위한 도움을 얻고 싶다. 연극은 정규과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상당히 오래전부터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오세곤 연극은 아주 오래전부터 교육 현장에 들어가 있었다. 연극을 위한 희곡은 문학과 직결돼 있어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 대학의 연극영화과 학생에게 국어교사 자격증을 줬다. 덕분에 연극영화과 출신의 교사가 전국적으로 10명 정도 됐다. 그러다가 1985년 이후 이 제도가 사라졌다. 1990년대 초 연극 교과목 추진을 진행했지만 명맥을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다. 이후 2000년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했는데, 그 이유는 대학의 연극영화과에서 교직 이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장 99학번부터 교생 실습을 나가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 초·중·고교 현장에는 교과목이 없었다. 그래서 연극 교과목 추진을 다시 꺼내야 할 이유가 생겼다.

김정만 예술교육과 국어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기술 개발'로 동일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어교사 자격증을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게다가 연극은 영화, 영상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이미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오랫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돼왔다. 일반 교사도 교수법 중 하나로 연극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우리나라에는 예술 장르 중 연극만 유일하게 '교육'을 붙인 '교육연극'이라는 독립 영역이 있다. 교사들이 80년대부터 외국의

연극 활용 교수법을 가져다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것이다. 교육 현장과 연극은 이미 오랜 역사가 있었다.

장다나 그렇다면 2000년부터 다시 시작된 연극 교과목 운동은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쳤나?

오세곤 당시 대부분 대학은 연극과 영화 전공자가 '연극영화과'로 묶여 있었다. 때문에 2000년부터 개인적으로 연극 교과목 추진을 주장하면서 연극과 영화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절실하게 느꼈다. 당시 영진위 이충직 위원장에게 영화 교과목 추진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장미희 부위원장이 연극 교과목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영화 쪽에서는 공교육 추진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상황이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됐다. 그러던 와중인 2004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¹에서 연극 관련 예술강사 파견 프로그램을 요청해왔다. 또 2005년에는 무용 예술강사 파견 프로그램을 요청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연극, 영화, 무용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가 자주 연대해 예술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곤 했다. 논의의 핵심은 독립 장르의 전문교육과 달리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은 공통 예술교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시간에는 노래하고 어떤 시간에는 춤을 추고 어떤 시간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뭉뚱그려진 예술교과가 일반 학생에게는 더 적합하다. 이런 결론을 갖고 연극, 영화, 무용이 새로 공교육에 진입하는 시도를 하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연극과 무용 예술강사 풀 pool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넘겨준 이후 곧 동력을 잃고 말았다. 그러다 2014년 9월에 발표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연극만 교과목으로 진입하게 됐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연극은 이미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진 상황이라 먼저 시행하게 된 것인데, 무용 쪽에서는 상당히 섭섭해질 일이다. 그렇지만 연극이 교과목으로 진입한 것을 계기로 견고했던 교육과정의 틀이 변화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이연심 이 자리를 위해 예전 자료를 뒤져봤더니 당시 특별대책위원회가 만든 2002년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여기에 그동안 연극 교과목 추진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다 들어 있다. 먼저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장미희 부위원장의 소개로 교육부총리를 만났으며, 여러 교육감 등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또한 전국 각급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홍보도 나름 열심히 했다. 한국연극협회 최종원 전 이사장은 직접 일선 학교 교장을 만나러 다니기도 했다. 한 학교라도 시범학교를 개설해 좋은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주장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었다. 그와 동시에 한편에서는 콘텐츠 개발을 진행했다. 대학과 파트너십 만드는 작업도 진행했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극학과 지도교사 중심의 연수도 했다. 매 행사마다 부대행사로 세미나를 열어 연극교육에 대해 논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입체적으로 진행한 이유는 모두 연극 교과목 추진에 대해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¹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아르떼, arte)은 현재 두 가지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인 예술강사 파견 프로그램(속칭 '강사풀'이라 불림)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나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중 예술강사 파견 프로그램에서는 2012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전공자들을 '문화예술교육사'로 선발해 공교육 기관의 체험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해 파견하고 있는데, 영화는 2004년부터 포함됐다. 현재 교직이수, 경력에 따라 1급과 2급 자격증으로 나눠 시행하는 중이다.

장다나 공교육 교과목 채택 이후 현재 상황은 어떤가? 당장 2018년부터 연극이 정규과목으로 시행된다고 알고 있다.

이연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연극 단원을 추가하고, 고등학교에서는 2018년 1학년부터 예술교과 선택과목으로 연극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예술교육 과목으로 음악과 미술이 있는데, 2018년부터 연극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연극 교과서와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직 일선 학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선택과목 지정은 학교장 재량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학생과 합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라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다나 연극이 정규과목으로 지정되기까지 다른 예술 분야의 반발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연심 예술교육엔 매주 총 10 시수가 주어지는데, 전체 시수가 곧 교사의 숫자와 연결된다. 때문에 현직 예술 과목 교사의 반발이 심했다. 그동안 10 시수를 음악, 미술이 나눠 했는데 연극이 새로 진입해 서로 경쟁해 나눠 가져야 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한번은 교육과정 개발자 전체 회의에 300명 정도가 모여서 대토론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개적인 성토가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술교육이 파행으로 운영되는 상황인데 연극이 들어오면 파행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연구자들이 발표를 하는 것도 망설여질 정도로 조심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해야 할 것인지 전략을 짜서 대처해야 했다.

오세곤 음악, 미술교사가 반박한 논리도 일리가 있었다. 학교 현장은 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외부에서 변화의 동력이 들어온다고 수용이 되겠느냐, 과연 학교가 예술교육다운 예술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다. 그나마 음악, 미술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변수가 들어오면 있던 것도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 그렇다면 예술교육이 가능한 환경으로 바꾸는 운동부터 해야 할까? 이 역시 현실적이지 못하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면서 동시에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결국 예술교육의 방향성 문제다.

김정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교과목에도 변화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컴퓨터 과목 등이 만들어졌다 사라진 것²처럼 연극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연극이 새 교과목으로 들어옴으로써 예술교육 강화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여긴다면 학교 현장은 전투장과 다름없는 곳이 될 것이다. 공교육이 무너진 것도 자기 교과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예술계 전반에서 함께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장다나 현재 학교에서는 '과목 간 교류와 융합'이 최대 화두라고 한다. 때문에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

김정만 지금 교육계에서는 교과목의 벽을 허물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어와 음악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논의가 바로 교류와 융합이다. 오랫동안 국어를 가르치면서 연극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시험은 어떻게 볼 것인지와 같은 세세한 부분에서 교과목 융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유를 비롯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학교 안팎에 많다는 점, 여전히 자기 과목만

²컴퓨터 과목은 사라졌다 2018년부터 '코딩교육'의 형태로 초·중학교에서 다시 시행된다.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 사회의 분위기 등으로 교과목 융합은 넘어야 할 벽이 높다. 지금 당장 교류와 융합이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정만 바꿀게 아니라 일선 교사가 대변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장다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화 교과목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을까?

오세곤 각 예술 장르가 학교 현장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장르가 공교육 안으로 들어가야 예술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중요성도 부각될 수 있다. 교과 대 교과의 제로섬게임이 아니다.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 전문가에게 필요한 교육도 있어야 하지만 5천 명이 들을 교양과목도 필요하다. 얼마 전 MIT 공대와 서울대의 교양과목 목록을 비교한 기사를 봤는데 확연한 차이가 보이더라. 우리는 MIT 방식이 맞다는 걸 알지만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역시 선택과목이 존재하지만 선택할 게 별로 없다. 전국에서 단 몇 명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내용과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김정만 영화는 현재 교육계의 이슈인 융합과도 절묘하게 잘 맞다. 다양한 교과목과의 접목이 가능하니까 말이다. 영화라는 독립 교과보다는 다른 교과와의 통합·융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영화 자체도 발언의 힘이 강할 것이라고 본다. 영상의 힘과 중요성은 누구도 외면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해본 경험상 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수장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웃음) 교육감이 “예술교육을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라고 물었을 때 바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2011년 광노현 교육감이 그랬다.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터에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미술, 체육 등의 수업을 6개월 정도 서울시 교육청 주도로 시행했는데, 가장 효과가 두드러진 것이 체육이었다. 그리고 나서 KBS에서 그 내용이 방송되더니 곧바로 2012년에 체육이 필수과목이 됐다. 하지만 2년 뒤 교육감이 교체되자 예술교육이 다시 수면기에 들어갔다. 예술교육의 중요성은 알지만 조용히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또다시 교육감이 바뀌니 서울 소재 모든 중학교에서 연극, 영화, 뮤지컬 중 하나를 수업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 그렇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에서 체육 교과를 강제하면 현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만약 2011년 서울시 교육청의 실험이 지속됐더라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그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연심 교육부에서는 시대적 요구가 있으면 새로운 교과를 만들어주겠다고 한다. 일선 학교는 위에서 시달되는 것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힘들다. 그러니 양쪽 모두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판이 만들어졌다면 가르칠 교사와 교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시대적 요구를 창출하려면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하고,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언론(매스컴)의 영향이 크다. 그런 점에서 연극보다는 영화가 강점이 있을 것이다.

오세곤 오히려 영화계는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연극계도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꽤 수동적이었다. 정부나 외부에서 지원금이 들어오면 진행하다가 지원금이 끊기면 멈추곤 했다. 2008년에 초등학교 교과서 지침을 개발하다가 중단된 것이 그 예다. 예산이 없어지니 안 하게 된 거다. 그러다 2015년에 개정 교육과정 발표가 나자 교육과정을 짜고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개발한다니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이뤄진 면도 없지 않다. 그런 점이 후회스럽다. 연극계가 힘이 좀 있었더라면 보다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싶은 것이다. 그렇지만 연극과 달리 영화계는 힘이 있지 않나? 제도적으로 정규교과 채택이라는 목표와 설정 아래 착실히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학생들이 영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과서와 교과 과정, 교사가 활용하기 쉬운 교재 개발을 진행하고, 영화교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것 말이다. 교재는 이미 몇 가지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커다란 지향점을 가지고 사전 준비를 위한 노력이 미리 이뤄진다면 교과목으로 진입하는 것도 수월해질 수 있다. 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존재한다. 영진위 말이다. 일찌감치 위원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공교육 과정을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현장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영화 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에 갈 수 있는 영화 현장이 많으니 연극 전공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예술강사'라는 일자리에 대한 절실함도 적었다. 영화학회에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체계적으로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영진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 산하에 교육 부문을 만들어 정책, 콘텐츠, 대국민 홍보 노력을 하나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장다나 연극은 교육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영화계는 실제로 교육에 몸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돈을 벌면 학교에서 나와 현장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다. 개인과 업계 전체적으로 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느껴진다.

이연심 장르의 특성이 아닐까? 영화는 산업화가 많이 돼 있어 할 일이 많잖나.

장다나 그래서 그런지 교육 분야에서는 연구가 미미하다.

오세곤 당장 대학에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은 영화보다 연극이 큰 건 사실이다.

장다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통계를 보면 문화예술 교육을 원하는 학교에서 영화를 선택하는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김정만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영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수많은 동영상은 현장 교사 스스로 만들고 있고,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영상 자체는 이미 교육 매체로 많이 이용된다. UCC 대회는 기본이고 영상을 만드는 수업도 많다. 다만 '영화'라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영상의 다양한 기법을 어떻게 교육과 접목할 수 있느냐로 바라볼 뿐이다. 학교에서 영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연심 영상을 활용하는 것과 공교육 교과목으로 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본다. 교과목 추진을 원한다면 영화의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오세곤 영화가 산업화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굳이 교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겠지만, 내 생각에는 교육자로서의 자세를 가르쳐서 내보내야 할 대학에서 일찌감치 영화교육을 포기한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교직 이수 커리큘럼이 너무 많아서 교수들이 아예 빨리 얘기를 한다. 그거 아니더라도 나가서 할 일은 많으니, "할 사람만 하라"고 말이다. 이런 분위기가 영화교육을 약하게 만든 건 아닐까. 전공 학생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가 될 마음 자세를 부족하게 만든다. 그래서 더욱 전문교육으로 빠진다. 국악교육의 실패 원인이 똑같다. 7차 교육과정(2003년 시행)에서 국악이 음악 교과 과정 중 40%밖에 안 되니까 현역에서 활동하는 국악인들을 데려왔다. 그런데 단소, 소리 등 각자의 전공만을 강요해 학교에서 충돌이 많았다. 연극도 마찬가지로, 연극을 가르친다고 해서 대학로에서 연극을 올리듯이 어린 학생을 상대로 화내고 소리 지르면서 연습을 시키면 안 된다. 대학에서 교육자로서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 교사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조금 하다가 힘들면 떠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영화교육이 이뤄지겠나. 그런 생각은 영화 공교육에 있어 무척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다. 예술대학 교수들이 자기처럼 우선 예술가가 된 뒤에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아니라 이 학생이 앞으로 초·중·고교생을 만나는 일반 교육자가 될 것이라고 상정하고 가르쳐야 한다.

김정만 연극영화학과와 연극영화교육학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연극영화학과 전공이라 할지라도 뭘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될 때 교과서를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나는 교과서, 교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교과서는 점점 친절해지는 상황이다. 국영수 위주이다 보니 다른 과목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최소화하는 추세다. 그렇게 요즘 중학교 교과서가 아이들 눈높이로 많이 내려와 있는데 연극 교과서에는 아직도 전문용어, 전문지식이 다수 들어 있다. 이걸 꼭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집필진의 강박이 보일 정도다. 예술교과에 왜 이렇게 배울 게 많냐고 학생들이 지레 겁먹을 것 같은 느낌이다. 반면 미술, 음악은 그런 게 거의 없다. 한번은 연극 교과서에서 단원을 하나씩 빼는 작업을 하는 걸 볼 기회가 있었는데, 물론 그게 정말 힘든 일이긴 하다. 핵심을 심플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니까. 매번 교과서가 나올 때마다 편집과 눈높이 등등이 달라지는 게 보인다. 영화도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일반 학생 교육의 수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시작돼야 할 것이다.

이연심 놀이로 접근하는 영화를 통해 아이들의 관심을 끌겠다는 목표와 영화를 과목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 사이의 줄타기를 잘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기초 연구 자체가 이뤄져 있어야 한다. 영화라는 예술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영화를 모르는 교사도 사용하고 있는 영상·영화와 예술교육으로서의 영화는 무엇이 같고 다른지를 고민하는 것이 기초 연구다. 기초 연구 없이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를 쓰면 휘청거리게 된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나가겠지만 효율성 문제가 있으니 고민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영화라는 과목의 성격 규정, 전문교과와 달리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를 고민한 뒤에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콘텐츠에 대한 연구, 교육적 효용성도 증명해야 한다. 교사 입장에서 '영화가 교과목이 되면 수업시간에 뭘 가르치지?'라는 생각이 든다. 보통 사람들도 비슷하리라 생각하는데, '매번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교육이 되나? 기자재도 없는데 영화를 수업할 수 있을까?' 싶은 거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축이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콘텐츠로 깨줘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영화를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미리 고민하지 않는다면 막상 닥쳤을 때 전문교육과 일반교육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혼란스러워진다. 연극도 이제야 비로소 과목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고민의 기간을 줄이려면 교과목 추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게 좋을 것이다.

오세곤 장비 하나 없이 스마트폰만을 가지고도 영화 수업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이런 사례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선행된다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전문교과와 달리 영화 일반교과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김정만 2002년 1월에 연극교사들이 교수들에게 교육을 받은 적 있다. 개인적으로 각각의 전공 분야를 가진 교수에게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 연구도 필요하다.

오세곤 당시 자원봉사를 부탁할 수 있는 이들이 교수뿐이었기 때문이다.(웃음) 그때도 교수들은 이걸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해 교사들에게 가르친 것이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걸 대학에서 가르쳐도 어려워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김정만 사범대학교 학생이 졸업 후에 학교에 가서 대학생의 언어로 아이를 가르치면 '오늘 수업 참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연심 사실 이걸 대학에서 해야 한다. 핵심 정보를 아이들의 언어로 걸러내는 과정이 교육학이다. 영화로 교육학을 하는 것.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나.

김정만 영화교육론을 누가 시작할 것인가의 문제다. 초등학교에서는 영화의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에 누군가 뛰어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러나 교수 대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싶다. 연극에서는 한국연극교육학회와 한국교육연극학회 등 다양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영화교육학회가 만들어져 교사 교육, 일반 학생 교과목, 교육 효과 임상·검증 등의 연구를 해 이를 홍보하고 영화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서울문화재단 등이 벌인 문화예술 사업이 일선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절차도 필요하다.

오세곤 영화교사의 규모를 파악하는 단계도 필요하다. 99 학년부터 지금까지 약 2 천 명의 연극영화과 학생이 교육 이수를 했다. 그중 1 천 명 정도가 연극교사일 것이다. 학교에서 연극을 지도하는 교사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만 관련 단체 회원이 300 명이다. 한국교사연극협회, 전국연극교사모임 등도 1 천 명 수준이다. 연극이 교과목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 인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됐다. 교과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제시돼야 할 자료가 교육 인력의 규모다.

장다나 그렇다면 영화 공교육을 위해 교육부를 설득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오세곤 우리는 장관, 실장, 정책국장도 만나고 교육과정 심의회에도 들어가서 얘기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그걸 종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했다. 돌이켜보면 연극은 체계성이 약했다.

김정만 아무리 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설득해도 인사 개편이 되면 무소용이다. 그래서 공론화가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에서 관심을 보이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건데 관보다는 정책으로, 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본다.

오세곤 그런 여러 가지 것이 각각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수장이 요구하더라도 현장에 가까운 실무자가 힘들겠다고 하면 또 일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까지 다 설득해야 한다는 거다. 여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우선은 자유 학기제나 창의적 체험 활동, 특별 활동, 정규 교과목 등등 영화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누구에게 먼저 홍보와 설득이 필요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에 필요성을 홍보하고 일선 교육 현장과도 만나 설득하면서, 한편에선 영화 지도교사들을 만나서 어떤 식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연심 전략적인 방법 중 하나로 고려할 만한 것은 우수한 시범학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요즘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어 고등학교가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어떤 학교는

학생이 넘치고 어디는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럴 때 학교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시설이고 아이들이 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급식, 교복, 커리큘럼 등이다. 그런데 어떤 학교가 시범적으로 영화 과목을 채택한다면 프로그램이 특이하다, 영화를 만든다, 이런 것으로 홍보가 되고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시범학교는 교육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거점 학교를 만들어 장비, 콘텐츠, 인력 등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언론에서 주목할 수 있게 만들면 여론이 형성된다. 해당 학교가 유명해지면 여파가 생긴다. 지금 일선 학교들에서는 어떻게 존립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결국 주요 창출이다. 영화는 아이들에게 워낙 매력적인 장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장다나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을까?

오세곤 연극의 경우 누군가 미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끈기 있게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이 이어졌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였다.

김정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을 합쳤다가 지치고 보상도 없다고 하면 와해되기 쉽다. 일의 성패는 결국 사람이다. 누군가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밀어줄 추진체가 있어야 한다.

오세곤 누군가 책임을 맡더라도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영진위가 주도한다면 영화로서는 큰 장점이 될 것이다. 공공기관이니 흔들리지 않고 진행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연극은 일을 지속하는 게 힘들었다. 연극협회 회장 임기가 3년인데, 3년마다 흔들리곤 했다. 그러나 영진위는 제도적으로 교육 부문을 만들어버리면 수장이 바뀐다고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탄탄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놓고 시작해보라. 연극을 벤치마킹하되,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

김정만 단지 벤치마킹에 그칠 게 아니라, 영화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극도 잘돼야 하니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그동안 연극, 영화, 무용이 노력했는데 이제 연극 하나가 들어왔다. 학교는 가르칠 게 많고 업무가 많아지니까 사생대회, 합창대회, 체육대회, 발표 전시회 등도 슬그머니 없애려고 하는 시점이다. 그렇게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예술교육을 지키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학교장 평가에 문화예술 교육 내용이 들어가는 방안, 학교 내에 문화예술 교육을 총괄하는 담당자가 최소 한 명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정책이 생긴다면 모든 장르의 예술교육이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것이다.

오세곤 고등학교 교과목 채택은 하나의 상징이고 전체, 그리고 미래의 문화예술 교육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전국 1/3 정도의 학생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의 예술교육을 받고 있다. 이를 개선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법조문 그대로, '초·중·고교생은 일주일에 2시간 예술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문화예술 교육 전반의 지향점을 갖고 함께 고민하고 공유했으면 한다. 전국 1만여 개 학교에 일주일에 15시수 정도 수업하는 기간제 예술교사 5명이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10년, 20년, 그것도 모자라면 30년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그 안에서의 영화교육 역시 달라질 것이다. 이번에 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모든 대선 캠프에 보냈다. 사회적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 양성을 정치권에 일깨워줄 수 있어야 한다.